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선정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97.1%) 및 세수 성장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공매 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합성한 종합 평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700만원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최근 10년 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시상금(도비) 4억 89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고창군민의 위상을 높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체납세 분할납부를 유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선정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징수실적을 기반으로 지방세 징수율, 세수 성장률, 징수율 성장, 번호판 영치, 공매 실적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군은 체납자 출장 방문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부동산 등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대상, 하반기 최우수에 이어 2022년 하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천7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2023년에도 군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내년 국가 예산 5477억원 확보

## 정읍시, 전년 대비 6.2% 증가

정읍시가 2023년도 국가 예산으로 전년 5,157억원 대비 320억원(6.2%)이 증가한 5,47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5.1%)을 상회하는 수치로 정읍시 주요 현안 사업과 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초부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세종·국회사무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시와 중앙부처, 국회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뤄 국가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 국회

의원 공조뿐만 아니라 타지역 예산 소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런 성과다.

2023년 국가 예산 주요 신규사업(15건)은 △농축산융합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2억, 총사업비 200억) △2023년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지중화사업(11.43억, 총사업비 83.81억) △정읍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6.55억, 총사업비 80억) △애당지구 농촌융복합 융합계좌편의사업(3억, 총사업비 291.51억) △백운지구 배수 개선사업(1억, 총사업비 158억) △평택지구 배수 개선사업(1억, 총사업비 147억) △신하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0억, 총사업비 40억) △금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9억, 총사업비 99억)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5억, 총사업비 177.94억) △매죽2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4.87억, 총사업비 9.74억) △산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4.21억, 총사업비 70.3억) △정읍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3억, 총사업비 50억)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및 전용장비 지원(6.54억, 총사업비 28.92억)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31.5억, 총사업비 180억) △내장산 다례문화원 모로단청 보수(1.84억, 총사업비 4.6억) 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선 출범이래 국가예산 최다액 1784억원 확보

### 고창군, 터미널 지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선정 등 연일 낭보

고창군이 내년 국가예산으로 1784억원을 확보하며 현안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관련,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총사업비 652억원 규모)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민선 출범이래 국가예산 최다액인 178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예산 증가액은 전년도(607.7조 원)에 비해 5.1% 증가한 638.7조원이다.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액은 전년도(1661억원)보다 7.4%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예산 신장율을 상회하며 경제위기와 정부의 전전재정 기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은 내용적으로도 고창군 미래 성장을 주도

할 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토란같은 사업들이 많아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신규사업 반영액이 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의 신장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 계속사업과 국책 등 확보액에 의존했던 비율을 극복했다. 대형 국가시범사업은 물론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비율을 확보해 향후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확보한 주요사업으로는 총사업비 규모 1707억원의 터미널 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국민안심 해안 100시범사업(150억원)'이 예산안에 담겼다.

또 △제4차 범정부문화도시(160억원)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150억원) △서해안 관광도로(선셋드라이브)조성

사업(192억원) △상하지구 풍수해 생물관리 종합정비사업(342억원) △수남지구 배수개선사업(70억원) △운곡1·2·3 레포츠파크 조성사업(58억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140억원) △흥덕·부안·공음·고창읍(3단계)·고수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76억원) △고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축사업(28.9억원) 등이 포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구원과 고창 출신의 인구백, 홍영표, 강병원, 정운천의원,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도움을 준 한병도 의원과 이용호 의원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중앙부처 등 39개 부문 수상... 내실 있는 시정 운영 입증

정읍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정 각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입증했다.

시는 올 한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비전으로 정읍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총 39개(2022년 12월 27일 기준)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올해 수상 실적은 중앙부처 11개 부문, 전북도 24개 부문, 기타 4개 부문이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시군 평가'에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투자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한 공로로 농식품부 주관 '식량 산업 이행평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건사업을 통한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보건복지부 주관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와 '감염병 관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마을 이야기를 미디어에 담아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마을 미디어로 곳곳 소식 알려요”

### 정읍시, 주민 중심 소식지 5편 · 영상 17편 제작 · 보급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마을 이야기를 미디어에 담아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전라북도 주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민주도로 영상과 소식지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제작·보급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지역, 공동체, 주민이 직접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일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동네와 이웃 이야기 등의 소식을 전하며 주민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장상동 월영마을과 송산동 송학마을, 감곡면 풍촌마을·순촌마을, 입암면 대흥리 공동체 총 5개 마을에 미디어 제작을 위한 기본 교육과 전문가를 통한 현장 코칭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에는 미디어 활동가(자문단) 10명과 마을주민 359명이 참여해 주민 중심의 마을 소식지 5편과 마을 영상 17편을 제작했다.

관련해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난 28일 센터 교육장에서 사업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 미디어 사업의 추진 방향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마을과 지역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 미디어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봉열 공동체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그동안의 마을 미디어 활동을 공유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마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고창군이 올해 전라북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기간으로 정했다.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외 되는 이웃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사업비로 배정된 7억8,000만 원을 총 1,294명의 주민에게 모두 지원했다. 사인별로는 생계지원 753건, 의료지원 171건, 연료비 지원 363건, 주거지원 7건 등이다.

고창군은 현재 14개 읍면에 긴급복지지원 현수막을 설치, 고창군민이 위기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긴급복지 사업비 7억4,000 만원을 확보해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